

더위 먹은 불펜 재정비...7월 자책점 14.21 조상우 2군행



‘셋별’ 성영탁, 좋은 제구·배짱투 장점...필승조 역할 좌완 김기훈·유지성 콜업...침체된 분위기 전환 기대

KIA 이범호 감독이 위기 탈출을 위해 불펜에 변화를 줬다. 조상우가 재정비 시간을 보내고, 성영탁이 필승조로 역할을 맡는다. KIA 타이거즈가 두산 베어스와의 7월 마지막 경기에 앞서 엔트리를 대거 바꿨다. 우완 조상우, 좌완 이준영, 외야수 박재현을 말소한 KIA는 좌완 김기훈과 유지성을 콜업했다. 또 헬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한 외야수 박정우도 엔트리에 등록했다. 이번 엔트리의 핵심은 ‘뒷문’이다. 조상우는 KIA가 장현식의 FA 이탈을 채우기 위해 아심차게 영입한 자원이다. 이준영은 오랜 시간 KIA 불펜을 지켜온 좌완 스페셜리스트다. 하지만 투타의 잇박자 속 두 선수의 난조가 계속되면서 KIA는 불펜 핵심 자원들에게 재정비 시간을 주기로 했다. 조상우는 지난 30일 경기에서 2-1로 앞선 8회 출격해 승구 실책 등을 기록하면서 동점을 허용했다. 이 경기는 연장 11회 승부 끝에 2-2 무승부로 끝났다.

조상우는 올 시즌 51경기에 나와 43이닝을 던지면서 5.02의 평균자책점으로 4승 6패 24홀드를 기록하고 있다. 팀에서 가장 많은 홀드를 수확했지만 기록 많은 시즌을 보내고 있고, 7월 10경기에서는 11실점을 하면서 월간 평균 자책점이 14.21까지 치솟았다.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공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불펜 피칭 때에도 좋은 공을 뿌리고 있고, 데이터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상우와 준영이가 심리적으로 맞고 하다 보니까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런 심리 상태로 올리면 똑같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쉬게 할 생각이다”며 엔트리 변경에 대해 설명한 이범호 감독은 “상우를 다른 팀에서 봤을 때와 비슷한 것 같다. 구위나 스피드는 예전하고 비슷하다. 투심을 많이 구사했던 것 같은데 포심으로 스피드는 올라왔다. 구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팀에서 적응해야 하고, 팬들의 열정도 강한 만큼 부담이 커진 것 같다. 올라가서 불론 하

고, 점수를 주고 하나씩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 같다. 이겨내 줘야 한다. 플레이는 선수가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상우가 심리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이범호 감독은 올 시즌 좋은 활약을 선보이고 있는 ‘셋별’ 성영탁에게 더 많은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프로 두 번째 시즌에 1군 무대에 데뷔한 성영탁은 좋은 제구와 배짱투로 불펜의 새 전력으로 떠올랐다. 30일 경기에서도 8회 1사 1-3루 상황에 나와 무실점으로 이닝을 막는 등 이 경기까지 26경기에 나와 31.1이닝을 소화하면서 1.72의 평균자책점으로 12승 2패 1홀드를 기록하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또 새로 가세한 김기훈과 유지성의 새로운 활약도 기대했다. 이범호 감독은 “상우 자리에 영타이를 넣어서 세팅을 해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기훈이가 스피드가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올릴 생각이었다. 새 선수들이 와서 씩씩하게 던지다 보면 침체된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



부진의 7월을 보낸 KIA 필승조 조상우가 31일 엔트리에 말소됐다. 조상우는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뒤 엔트리에 재등장할 예정이다. <KIA 타이거즈 제공>

‘파죽의 7연승’ 하나카드, PBA 팀리그 1R 우승

하나카드가 파죽의 7연승으로 2025-2026시즌 프로당구(PBA) 팀리그 1라운드 우승을 차지했다. 하나카드는 3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팀리그 1라운드 최종일 경기에서 휴온스를 세트스코어 4-2로 꺾고 7승 2패(승점 20)로 정상에 올랐다. 하나카드는 개막 후 2연패로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이후 7연승을 내달리며 반전에 성공했다. 이번 우승으로 하나카드는 이번 시즌 가장 먼저 포스트시즌 티켓을 확보했다. 하나카드는 초반 1세트와 3세트를 내주며 흔들렸지만, 4세트 혼합복식에서 무라트 나지 초클루(튀르키예)-사카이 아야코(일본)가 역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바꿨다. 이후 신정주와 김가영이 각각 남녀 단식에서 승리하며 4-2로 경기를 끝냈다. 1라운드 최우수선수(MVP)는 김가영이 차지했다. 김가영은 단식과 복식을 합쳐 13승 2패, 승률 86.7%(에버리치 1.065)를 기록하며 팀 우승을 이끌었다. 통산 세 번째 라운드 MVP 수상은 에디 레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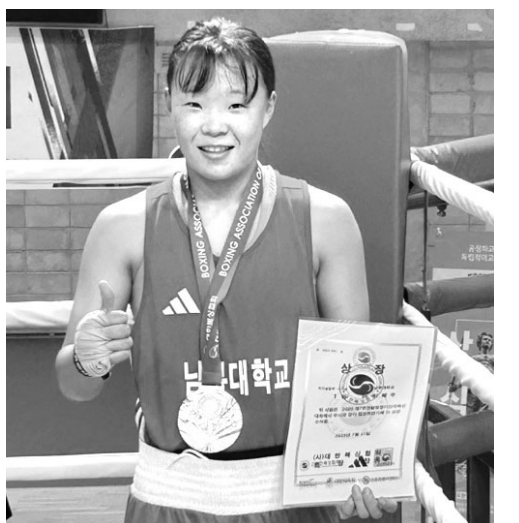
김가영(하나카드)이 30일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2025-2026시즌 프로당구(PBA) 팀리그 1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짓고 뒤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PBA 제공>

(SK렌터카)와 함께 최다 타이다. 김병호 하나카드 리더는 “개막 초 연패로 걱정했지만, 이후 선수들이 힘을 내줬다”며 “2라운드부터는 다양한 조합으로 더 많은 우승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남부대 이혜주, 경찰청장기 전국복싱대회 금

동구청 선수들도 활약

남부대 이혜주(2년·사진)가 제7회 경찰청장기 전국복싱대회에서 팀의 첫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이혜주는 31일 경북 영주 대한복싱훈련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51kg급 결승에서 ‘난적’ 김가림(대구복싱마스터)을 심판전원 판정승으로 꺾고 대회 정상을 차지했다. 이혜주는 3분 3라운드로 진행된 경기에서 연달아 5-0의 스코어를 장식하면서 경찰청기 첫 남부대 우승을 이뤘다. 이혜주는 이번 우승으로 금메달과 함께 경찰청 복싱단 채용 면접 자격을 얻었다. 경신여고 3학년 때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만큼 놀라운 성과다. 남부대 이현성 감독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생활체육 현장에서 눈에 띄어서 발굴한 선수다. 성실하고, 힘든 훈련도 잘 따라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다”며 “이번 우승이 선수는 물론 남부대 복싱부에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남자일반부 -60kg와 -75kg에 도전한 남부대 이도윤과 이재민은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 동구청 선수들도 금빛 편지를 선보였다. 광주 동구청 신범호가 대회 남자 일반부 -64kg 결승에서 한영훈과의 ‘집안 싸움’ 끝에 금메달을 차지했다. 유기현은 +91kg 결승에서 김정환(김포시청)을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69kg에 출전한 광주 동구청 유기현은 은메달을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

세계육상연맹 “여자 선수, 유전자 검사 통과해야 세계선수권 출전”

STR 유전자 검사 의무화...9월 1일부터 적용

세계육상연맹이 ‘여자 선수의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했다. 9월 1일부터 ‘세계육상연맹 세계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대회’ 여자부 경기에 출전하려면, STR 유전자(Y 염색체의 일부로 남성적 특성을 발달시키는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세계육상연맹은 지난 31일 “여자부 선수의 자격 조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다”며 “새 규정은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9월 13일에 시작하는 2025 도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는 선수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STR 유전자 검사는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이 검사는 생물학적 성별을 판별하는 신뢰

할만한 지표를 제공한다”며 “여자 선수는 땀 점막 채취, 혈액 채취 중에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된다. 도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는 여자부 선수는 해당 국가 연맹의 감독하에 유전자 검사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세계육상연맹은 “STR 유전자 검사에서 Y 염색체가 발견되면 세계 랭킹 포인트가 걸리지 않은 여자부 경기나, 여자부가 아닌 다른 부문 경기에만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의 모든 국제대회와 세계육상연맹 산하 각국 단체가 여는 국내 대회에 ‘세계 랭킹 포인트’가 걸렸다. 사실상 STR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여자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세계육상연맹은 여자 선수의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 수치에 관해 가장 엄격한 중목 단제로 불렸다. ‘400m, 400m 허들, 800m, 1,500m, 1마일(1.61km) 여자부 경기 출전 기준을 테스토스테론 5nmol/L(나노몰) 이하’로 정했던 여자부 ‘DSD(Differences of Sexual Development·성적 발달의 차이) 규정’을 2023년 3월에는 ‘여자부 전 중목 테스토스테론 최대 허용 수치 2.5nmol/L’로 강화했다. 또한, 12세 이후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의 여자 중목 출전을 금지했다. 올해에는 ‘생물학적 여성만이 여자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전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향곡단 특별기획공연 '풍류 in 광주'

일시 / 장소 : 2025-07-12(토) 11:00, 13:00 / 북구 문화근린공원 2025-08-02(토) 13:00, 15:00 / 청단 국립광주과학관 2025-08-03(일) 13:00, 15:00 / 청단 국립광주과학관 문의 : 062-526-0363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Flute'

일시 : 2025-08-2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